

제주와 하이난의 인문유대를 위한 제언

-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중심으로 - *

박성혜**

목 차

1. 머리말
2. 제주와 하이난 무형문화유산의 개요 및 특징
3.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제언
 - 1) 보여주기
 - 2) 극대화하기
 - 3) 집중하기
4. 맺음말

1. 머리말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韓中人文交流主體省市)’는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시 합의된 ‘인문유대 강화사업’ 중 하나로, 2014년에는 경상북도와 산시성(陝西省)이,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하

* 이 논문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IA5A2A03034503]

** 가천대학교

이난성(海南省, 이하 ‘제주’와 ‘하이난’으로 칭함)이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제주와 하이난에서는 상호 포럼 참가, 공무원 교류, 대표 도서관 교류, 언론사 방문, 김정희와 소식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교류가 펼쳐졌는데, 본고는 이 중 ‘제주의 날’과 ‘하이난의 날’ 행사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교류’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한 이유는 무형문화유산이야말로 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압축하여 보여주는 정수(精髓)이며, 주지하다시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2016년에는 제주의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주와 하이난’이라는 장소에 주목한 이유는 지난 1년 동안의 테마 도시 사업이 막 마무리된 지금, 자체 평가와 언론의 표현대로 ‘모범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을지 탐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¹⁾

‘제주의 날’과 ‘하이난의 날’ 행사는 각각 두 지역의 대표축제인 ‘탐라문화제’와 ‘환리제(歡樂節)’를 전후하여 펼쳐졌다. 먼저 2015년 10월 4일부터 8까지 제주에서 열린 ‘하이난의 날’ 행사에서는 황화리(黃花梨) 조각품 전시, 하이난민속공연단의 전통춤(錦秀中華, 盅盤舞, 季嶙, 苗嶺古風) 및 하이난여성중창단의 노래(길쌈노래, 하이난 연가) 공연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어서 2015년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하이난에서 개최된 ‘제주의 날(韓國濟州日主題活動, 줄여서 濟州日)’ 행사에서는 190명의 방문단이 준비한 제주도립무용단의 공연, 제주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사진전 등이 펼쳐졌다. 필자는 일차적으로 양 지역에서 준비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국적인 풍물 보여주기에 그쳤는지 아니면 진실로 그들의 정체성을 집약시킨 정수를

1) 원성심, 「제주-하이난, 한·중 인문교류 중심축 역할 ‘모범사례’로 발표」, 『헤드라인 제주』 2015.12.25.

선택하여 설명해 준 것인지, 이어서 이를 체험한 대중들이 서로의 전통 문화를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궁금했다. 또한 본고의 수신자는 ‘제주’임을 밝힌다. 제주는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양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행사들의 장·단점을 거름으로 삼아 후속 교류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5년을 ‘인문교류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호기롭게 출발한 1년 동안의 여정이 단순한 선례(先例)에 그칠지, 모범이 되는 선례로 꼽힐지는 양 지역 참여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마음으로 얼마나 이해했는지(民心相通)에 달려있다고 본다. 경상북도와 산시성의 경우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러한 인문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양 지역 문화의 뿌리인 전통문화 교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2. 제주와 하이난 무형문화유산의 개요 및 특징

왜 하이난은 황화리(黃花梨)로 만들어진 조각품을 전시했으며, 충판춤(盅盤舞)을 추고 길쌈노래를 불렀을까? 왜 제주는 한치무침·돔베고기·돼지고기산적·오메기떡 등의 향토음식 시식을 준비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와 하이난에서 각각 어떠한 무형문화유산들이 지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하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그 대략적인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의 무형문화유산은 현재(2016년 1월 기준) 중요무형문화재 4개와 시도무형문화재 19개가 선정된 상태인데, 문화재연구회에서 출판된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서적과 문화재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제주의 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

항목	중요무형문화재 (4개)	시도무형문화재 (19개)
공예 기술	망건장(網巾匠) 제66호 :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총으로 엮어 만든 일종의 머리띠 (1980년 지정)	덕수리 불미공예 : 무쇠로 솔과 쟁기날을 제작하는 기술 (1986년 지정)
		정동 벌립장 : 농부들이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는 모자인 벌립을 제작하는 기술, 정동(땡땡이덩쿨)으로 만들 (1986년 지정)
	탕건장(宕巾匠) 제67호 : ‘감투’라고도 일컬으며 남자들이 갓을 쓸 때 받쳐 쓰는 모자의 일종으로 평상시 집에서 씀 (1980년 지정)	고분 양태 : 가는 대나무 가닥을 엮어 만든 모자 (2002년 지정)
		용기장 : 식수를 운반했던 ‘허벅’을 만드는 기술 (2001년 지정)
		성읍리 초가장 : 제주의 전통초가 및 지붕을 잇는 기술 (2008년 지정)
전통 연행	제주민요 제95호 : 농사짓기 소리, 고기잡이 소리, 일할 때 부르는 소리, 의식에서 부르는 소리, 부녀요, 동요, 통속적인 잡요 등으로 나뉨 (1989년 지정)	해녀노래 : 해녀들이 배를 타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민요 (1971년 지정)
		방앗돌 굴리는 노래 : 산이나 들판에서 연자방아의 옷돌과 알돌을 만든 후, 마을로 굴러오면서 부르는 노래 (1986년 지정)
		멀치 후리는 노래 : 그물에 걸려있는 멀치를 후리면서 부르는 노래 (1986년 지정)
		제주 농요 : 밭일 노래의 일종 (2002년 지정)

		진사대 소리 : 여성들이 밭일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 (2005년 지정)
		귀리겉보리 농사일 소리 : 겉보리 농사를 지을 때 부르던 노래 (2007년 지정)
		제주시 창민요 :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불리는 통속민요, 잡요 (2009년 지정)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71호 : 제주시 건입동의 부부수호신과 영등신에게 올리는 해녀제사임 (1980년 지정)	영감 놀이 : 도깨비(영감)에게 풍어와 무병을 기원하는 놀이굿의 일종 (1971년 지정)
		송당리 마을제 : 생육과 농사의 여신인 백주또마누라신에게 드리는 마을제사 (1986년 지정)
		납읍리 마을제 : 홍역신, 마을수호신, 손님신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드리는 마을제사 (1986년 지정)
		제주 큰 굿 : 규모면에서 가장 큰 종합적 제의 (2001년 지정)
		제주 불교의식 (2002년 지정)
음식 제조	(없음)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 좁쌀로 빚은 탁주를 제조하는 기술 (1990년 제정)
		고소리 술 : 오메기술을 증류시켜 소주를 제조하는 기술 (1995년 제정)

제주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을 들 수 있다. 1971년부터 시작되어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무형문화재 선정 이전부터 있었던 ‘탐라문화제’로 응집시켜 축적한 경험 또한 제주가 지닌 큰 장점이다.²⁾

2) ‘탐라문화제’는 1962년 ‘제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4회부터 ‘한라문화제’

둘째, 그러나 선정된 목록의 숫자가 적으며, 항목의 종류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이는 국가적 체제의 미비로 인한 것인데,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채로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된 새 ‘무형문화유산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원형과 전승자’라는 틀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³⁾

셋째, 무용분야가 선정이 부재(不在)하다. 아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노래나 축제에 부속적으로 곁들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채형지는 ‘제주도에는 무용문화가 없다’고 단정지은 관념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탐라 순력도」, 칠머리당영등굿, 해녀춤 등에서 제주무용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숫자가 적고, 체계적인 연구와 전승은 불과 50년 안팎의 일이며, 레퍼토리 역시 관광에만 국한되어 제한적이라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⁴⁾

이를 통해 ‘제주의 날’ 프로그램을 살펴보자면, 제주의 정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무용보다는 노래에 집중하는 공연으로 구성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술(오메기술·고소리술) 이외에는 이렇다 할 무형문화유산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토음식 홍보의 선전이 돋보인다. 보완하여 덧붙이자면, 이후 제주의 날 행사에서는 ‘해녀(칠머리당 영등굿, 해녀노래)’·‘말(망건장, 탕건장)’·‘열악한 자연환경(오메기술, 고소리술,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등의 키워드로 압축되는 제주 고유의 특징을 드러낼 것을 건의해 본다. 이 세 가지는 하이난과

로, 42회부터 ‘탐라문화제’로 명칭이 바뀐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라 하겠다. 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 2015 “탐라문화제 변천사”, <http://www.tamnafestival.kr/information/?code=summary>, (검색일: 2015년 12월 23일).

3) 서연호, 2011 「21세기 한국문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2)-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선양 방안」, 『공연과 리뷰』 제75호, 93-100쪽, 여기서는 99-100쪽.

4) 채형지, 2012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35쪽, 여기서는 15-32쪽.

확연히 다른 유산으로, 그동안 줄곧 하이난과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유대감을 증강시켜온 전략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은 제주와 하이난은 본토와 구별된 ‘고립무원의 섬’이라는 점, ‘유배의 땅’이었다는 점, ‘여성’이 주도적으로 문화를 이끌어 왔다는 점, 일제에 의해 전략적 기지로 사용되었다는 점, 현대에 이르러서는 ‘관광업’을 중시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주로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하이난은 제주보다 18배나 더 큰 면적을 지녔고, 위도가 훨씬 더 아래여서 연중 내내 온화한 기후이며, 척박한 현무암 화산회토의 비율



이 적고 강수량도 풍부하여 기후가 온화하다. 사진 1(上), 사진2(下). ‘제주의 날’에 펼쳐진 제주의 문화유산과 하이난의 문화유산.

본적으로 삼모작 쌀 재배가 가능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지녔다. ‘다름’을 강조해야만 정체성과 매력이 더 돋보일 것이므로, 이후 이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무형 문화유산을 더욱 특화시킬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이어서 하이난의 무형문화유산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16개와 성급무형문화유산 99개가 선정된 상태인데, 베이징 문예예술출판사에서 출판된 무형문화유산시리즈와 하이난성 무형문화유산 사이트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하이난의 무형문화유산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16개와 성급무형문화유산 99개가 선정된 상태인데, 베이징 문예예술출판사에서 출판된 무형문화유산시리즈와 하이난성 무형문화유산 사이트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하이난의 무형문화유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성급 무형문화유산)

항목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 (16개)	성급 무형문화유산 목록 1차 (7개) + 2차 (20개) ⁵⁾
I 민간 문학	(없음)	2차 리족 민간고사(黎族民間故事) : 「사슴이 고개를 돌리다(鹿回頭)」를 비롯한 각종 영웅이야기 · 사랑이야기 · 생활이야기 등
II 전통 음악	1차 애주 민가(崖州民歌) : 하이난 한족의 옛 민가임	1차 왕베이다 민가 (黎族著名歌手王蚌大民歌) : 리족 여가수 왕베이다(1923-)의 민요
	2차 리족 민가(黎族民歌)	2차 단가인 민요(鴛家調) : 단가인(중국남부에 거주했던 수상생활인)의 노래
	2차 리족 죽관 · 목관악기(黎族竹木樂器) : 나무 · 대나무 · 짐승가죽 등으로 만든 40여 종의 악기	2차 리족 방언으로 부르는 장조민가 (黎族方言長調) : 리족의 5대 방언으로 부르는 장조민가
	4차 먀오족 민가(苗族民歌)	
III 전통 무용	1차 리족 막대춤(黎族打柴舞) : 나무막대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동물의 동작을 묘사한 춤	1차 절구빻기 춤(舂米舞)
		1차 원창지역의 충판춤(文昌盅盤舞) : ‘승부인’을 기리는 군파절에서 접시와 부채를 들고 추는 춤
		1차 리족 ‘동령가’ 춤(黎族舞蹈‘咚鈴伽’) : 키, 방울, 칼을 들고 추는 리족의 전통춤
		1차 먀오족 초룡춤(苗族招龍舞) : 기우와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먀오족의 전통춤
		2차 먀오족 반고춤(苗族盤皇舞) : ‘반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추는 춤
		2차 호랑이춤(虎舞) : ‘승부인’을 기리는 군파절에서 추는 호랑이 춤

	3차 조상춤(老古舞) : ‘조상들께 아뢰는 춤’이라는 뜻의 조상숭배춤	2차 리족 공통춤(黎族共同舞) : 원시시대의 가족의 안녕, 가족의 번성, 풍성한 수확을 기리던 춤에서 기원
IV 전통 연극	(없음)	(3차에 선정)
V 곡예	(없음)	(없음)
VI 전통체 육 및 놀이	(없음)	2차 리족 전통놀이 (黎族傳統遊藝與體育競技) : 활쏘기, 새총쏘기, 두 사람 줄다리기, 장대 넘기, 후프 꿰기 등
VII 전통 미술	(없음)	1차 채색 조각 그림(七彩雕畫) : 돌·나무 등의 조각품에 다양한 색을 칠하는 공예
		2차 청마이현 목탄인물화 (澄邁民間炭畫像)
		2차 룡탄진 조각(海南龍潭雕刻藝術)
VIII 전통공 예 및 기술	1차 리족 원시도자기제작 기술 (黎族原始制陶技藝) : 흑가래판축법으로 빚은 후, 가마가 아닌 장작더미에서 도자기를 굽는 기술	1차 동파 샷갓 만들기 기술(東坡笠)
	1차 리족 전통 방직·염색·방직·자수 기술(黎族傳統紡染織繡技藝)	2차 하이난 국수 제조 기술(海南粉) : 하이난 한족의 음식으로, 국물이 있는 국수와 비벼먹는 국수 두 종류가 있음
	1차 리족 수피옷 제작기술 (黎族樹皮布制作技藝) : 나무껍질을 두드려 얇게 펴서 나무옷을 만드는 기술	2차 링수이현 리족 등나무 공예 기술 (陵水黎族自治縣藤竹工藝有限公司)
	1차 리족 불 피우기 기술 (黎族钻木取火技藝) : 화판에 나무막대를 마찰시켜 불을 피우는 기술	

	2차 리족 점토판성형 도자기 제작 기술(黎族泥片制陶技藝)	
	2차 리족 선형가옥 건축 기술 (黎族船型屋營造技藝) : 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배 모양의 바닥이 약간 뜬 형태의 전통가옥	
IX 전통 의약	(없음)	(3차에 선정)
X 민속	1차 리족 삼월삼절(黎族三月三節) : 리족의 조상인 난인과 텐페이 남매를 기리는 명절	2차 싼야 후이족 결혼식(三亞回族婚禮)
	3차 리족 복식(黎族服食)	2차 108형제 제사의식(祭祀兄弟出海儀式) : 먼 옛날 해적으로부터 하이난 어민들을 구해주고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행방불명된 108형제를 기리는 의식, 바다로 나가기 전에 이들에게 제사를 올림
	4차 승부인 승배 풍속 ⁶⁾ (民間信俗-洗夫人信俗) : 하이난과 중국내지의 교류에 힘썼던 장수 ‘승부인’을 기리는 명절	2차 군파절(軍坡節) : 여성 장군 ‘승부인’을 기리는 명절
	4차 마조 제사 (媽祖祭典-海口天后祀奉) : 바다의 수호신 ‘마조’에게 항해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제사	2차 리족 전통 결혼식(黎族傳統婚禮)

5) 2012년 11월 27일에 공포된 3차 항목 72개까지 합치면, 성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99개이다. 본고에서는 그 숫자가 많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기에, 2차까지만 표에 기입하였음을 밝힌다. 3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海南省人民政府, 2012 “海南省人民政府關於調整并公布海南省省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項目名錄的通知”,

http://xxgk.hainan.gov.cn/hi/HI0101/201212/t20121212_814821.htm, (검색일: 2015년 12

이상을 통해 하이난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목록의 숫자가 많고 항목 분류도 세분화되어 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 10년이 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한 결과, ‘리족의 방직·염색·방직·자수 기술’이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양적인 수치로만 보자면 제주의 5배이다. 이는 정부주도의 상명하달식의 행정시스템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를 거둔 결과로, 2004년 전국적으로 ‘민족민간문화보호프로젝트(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를 실시하면서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거친 후, 2009년 무형문화유산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무형문화유산사(非物質文化遺產司)’의 설립을 토

월 20일).

- ① 민간문학: 琼僑歌謠, 黎族民間故事, 海螺姑娘傳說, 海南諺語, 黎從六之歌
 - ② 전통음악: 儋州調聲, 崖州民歌(확장), 黎族民歌(확장), 海南八音樂器, 黎族竹木樂器(확장), 海南軍歌, 海南齋醮科儀音樂, 儋州山歌, 臨高漁歌, 疍歌, 黎族賽方言長調, 海南苗族民歌
 - ③ 전통무용: 黎族打柴舞(확장), 黎族錢鈴雙刀舞(확장), 盅盤舞(확장), 海南苗族招龍舞(확장), 黎族春米舞(확장), 黎族共同舞(확장), 海南苗族盤皇舞(확장), 黎族面具舞, 黎族老古舞(확장), 海南虎舞(확장), 海南麒麟舞
 - ④ 전통연극: 瓊劇, 臨高人偶戲, 海南公仔戲, 海南齋戲
 - ⑤ 곡예: 아직 없음
 - ⑥ 전통체육 및 놀이: 黎族傳統體育和遊藝
 - ⑦ 전통미술: 海南椰雕, 龍塘雕刻藝術(확장), 傳統炭畫像工藝, 花瑰藝術, 海南貝雕
 - ⑧ 전통공예 및 기술: 黎族傳統紡染織繡技藝(확장), 黎族樹皮布制作技藝, 黎族骨器制作技藝, 黎族原始制陶技藝(확장), 黎族鉛木取火技藝(확장), 東坡笠制作技藝(확장), 黎族干欄建筑技藝, 南海珍珠傳統養殖技藝, 海鹽晒制技藝, 黎族船型屋營造技藝(확장), 黎族藤竹編技藝(확장), 黎族獨木器具制作技藝, 海南黃花梨家具制作技藝, 後安刀鍛造技藝, 椰胡制作技藝, 黎錦紡染織繡工具制作技藝, 土法制糖技藝, 文昌鷄養殖與烹調技藝, 海南苗族傳統刺繡蠟染技藝, 海南粉烹制技藝(확장), 鹿龜酒釀泡技藝, 沉香造香技藝
 - ⑨ 전통의약: 黎族醫藥
 - ⑩ 민속: 軍坡節(확장), 三月三節(확장), 黎族服飾(확장), 府城元宵換花節, 黎族傳統婚禮(확장), 黎族渡水腰舟習俗, 三亞回族傳統婚禮(확장), 祭祀兄弟公出海儀式(확장), 天后祀奉(확장), 海南春節習俗
 - ⑪ 기타: 南海航道更路經
- 6) 유소영·심규호가 번역한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미래인, 2007) “대륙에 최고의 직조기술을 전해준 야저우” 편에서는 승부인을 ‘세부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승(洗)’자를 ‘세(洗)’자로 잘못 본 오류로 보인다.

대로, 2011년 무형문화유산만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법규인 ‘무형문화유산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의 보호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이난도 이러한 국가적 조류에 적극 동참하여 ‘하이난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海南省非遺產保護中心)’를 설립하고, 하이난의 무형문화유산만을 다루는 성정부차원의 인터넷 사이트도 구축한 상태이다.

둘째, 리족과 먀오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민족들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잊지 않았다. 사실 하이난에 거주하는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족(84%)이며, 나머지 16% 정도가 소수민족으로 리족·먀오족·후이족 등의 순서이다.⁷⁾ 리족은 3,000여 년 전 하이난에 최초로 거주했던 본토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무형문화유산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족(하이난 화교 노래)·먀오족(민가, 각종무용)·후이족(전통혼례)의 무형문화유산도 간과하고 있지 않다. 특히 재미있는 항목은 ‘동파(蘇東坡, 蘇軾: 1037-1101) 샷갓 제작 기술’인데, 이는 제주에 유배되어 9년이나 머물렀던 추사 김정희가 즐겨 그린 ‘동파입극도(東坡笠屐圖)’의 모티프가 되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한족 및 리족·먀오족·후이족 등 여러 민족의 유·무형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어 ‘중화민족의 문화’로 재탄생시키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셋째, 그러나 질적으로 옥·석이 마구 섞여있는 현상은 하이난의 가장 큰 단점이다. 특히 단순히 나무판(火板)에 나무막대기(木弓)을 꽂아 마찰열을 일으켜 불을 피우는 ‘리족의 불피우기 기술’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맹목적 신청으로 질적 저하를 가져온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⁸⁾

7) 海南省人民政府, 2015 “海南統計年鑒”, <http://www.stats.hainan.gov.cn/2015nj/index-cn.htm>, (검색일: 2016년 2월 10일). ‘리족’, ‘먀오족’, ‘후이족’ 이외에 하이난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다음과 같다.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주족, 동족, 야오족, 투자족, 하니족, 카자흐족, 다이족, 리수족, 와족, 서족, 가오산족, 수이족, 나시족, 투족, 다우르족, 거라오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마오난족, 거라오족, 시보족, 타지크족, 러시아족, 징족, 타타르족, 허저족.

8) 김용범, 2012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

넷째, 하이난 역시 여성 중심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데, 바로 ‘황도파(黃道婆: 1245-1330)’와 ‘승부인(洗永: 512-602)’이라는 여성인물로 압축할 수 있다. 황도파는 증원의 방직기술을 하이난으로 전파한 인물로 ‘하이난의 여성적 파사로움’을 상징한다.⁹⁾ 비록 무형문화유산 항목에는 그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된 ‘리족의 방적·염색·방직·자수기술’ 및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수피옷 제작 기술’, ‘복식’ 및 성급 무형문화유산의 ‘리족 비단 방적·염색·방직·자수 도구 제작 기술’, ‘마오족 전통 자수·라란염색 기술’ 등의 ‘전통복식’ 항목들이 모두 그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복식문화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전략은 제주에서도 주시해야할 부분으로 사료되는데, 이미 ‘제주 10대 문화상징물’¹⁰⁾이 지정된 상태이기에 이 작업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갈옷’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 이어서 ‘승부인’에 대한 강조는 한족과 소수민족의 화합을 강조하는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서, 왕소군(王昭君)·문성공주(文成公主)·와씨부인(瓦氏夫人) 등의 강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승부인의 고향(洗夫人故

문화관광연구원, 54쪽.

9) 유소영·심규호, 2007 앞 책, 391쪽.

10) ‘제주 10대 문화상징물’은 한라산, 해녀, 제주어, 4·3, 돌문화, 제주굿, 초가, 갈옷, 굴, 오름이다. 또한 ‘제주 99대 문화원형상징물’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분야: 한라산, 오름, 용암동굴, 돌담, 꽃자왈, 제주마, 제주한란, 마라도, 바람, 성산일출봉, 왕벚꽃나무, 내창, 용두암, 용천수와 봉천수, 아흔아홉골, 영주십경, 사림발자국화석, 검은도새기, 문주란, 검은쇄, 노루, 산방산, 폭낭.

② 역사분야: 삼성혈, 고산리신석기유적, 제주목관아, 관덕정, 향파두리항몽유적지, 환해장성, 원당사지5층석탑, 제주4·3, 유배의당, 하멜의표류, 김만덕, 봉수와 연대, 오현단, 제주도식고인돌, 호적중초, 삼양동선사유적, 잣성, 진지동굴, 출륙금지령, 법화사지, 고득중, 읍성과 진성, 탐라.

③ 사회 및 생활분야: 해녀, 원담, 테우, 갈옷, 허벅, 정낭, 제주초가, 테우리, 굴, 말춤, 공예, 빙떡, 자리회, 소금빌레, 수놓음, 돛통시, 정당별립,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방애, 애기구덕, 모듬별초, 입도조, 관당과 삼춘, 몸국, 개말, 남방애, 고팡물림, 변쇄와 땀쇄, 해안일주도로.

④ 신앙언어 및 예술분야: 신구간, 제주굿, 방사탑, 칠머리당영등굿, 제주어, 걸궁, 탐라순력도, 내왓당무신도, 추사와 세한도, 제주민요, 설문대할망, 돌하르방, 동자석, 동·서자복, 당, 포제, 심방, 입춘굿, 영감놀이, 자청비, 본풀이, 한라산신, 삼승할망, 뉘트림, 이어도.

里：廣東省高州市長坡鎮雷垌村)’이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전파하는 애국주의교육기지(愛國主義教育基地)로 지정된 것이나,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 총리에 의해 ‘중국에서 으뜸가는 여성영웅(中國巾幗英雄第一人)’으로 명명된 것 등이 모두 그 근거라 하겠다.

이를 종합해 보건데, 하이난의 무형문화유산은 민족면에서는 ‘리족’에, 항목면에서는 ‘복식’에, 인물면에서는 ‘황도파’와 ‘승부인(洗夫人)’을 선택하여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근거하여 2015년 하이난의 날을 평가해 보자면, 화려한 황화목 조각품 전시보다는 하이난 민족들의 전통복식 전시 및 기술시연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하이난의 특징을 잘 드러냈을 것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면서 하이난의 자량을 넘어 세계의 문화로 꼽히는 방직기술 시연이 초라한 천막 부스 아래에서 맨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진행되었다는 것(사진 3)은 양측 모두의 무성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연꽃상(荷花獎)’ 수상작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각종 악기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하이난성민속가무단(海南省民族歌舞團) ‘지윙(季嶺)’ 공연은 짧은 시간 내에 하이난의 정수를 보여준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진다.¹¹⁾ 제주는 이를 거울삼아 프로그램 선택에 유의하면서, 무형문화유산



사진 3. 2015년 탐라문화제中 ‘중국-하이난 문화교류’ 부스 아래에서 선보인 리족 전승인의 방직기술 시연.

맨바닥 위에 펼쳐진 초라한 이불이 눈에 띈다

11) “海南日專場文藝演出活動中，海南省民族歌舞團爲到場的觀眾獻上了黎族舞蹈‘季嶺’等11個節目，海南的民歌・民舞・民樂・民情習俗等得到突出體現。其中舞蹈季嶺曾獲中國第七屆荷花提名獎，海南省首屆舞蹈大賽第一名等榮譽，演出使用的鼻簫・咧咧等十多種黎族民間竹木器樂均被列入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不少到場的韓國觀眾對海南文藝演出留下了深刻印象，海南的歌舞表演非常有特色，很有活力，太精彩

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이다.

3.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제언

1) 보여주기

표 3. 제주와 하이난의 유사성 (출처: 제주도청)

제주와 하이난의 유사성		
고립된 섬	제주	하이난
	1,848km ²	33,900km ²
	북위 33도 (아열대)	북위 18도 (열대)
유배의 섬	소식와 오공으로 대표되며, 주로 당·송시기	김정희와 오현으로 대표되며, 주로 고려·조선시기
여성의 섬	설문대할망 등 여신들, 강인한 해녀들	황도파, 승부인, 수공예에 뛰어난 리족 여인들
아픔의 섬 (일제강점)	천인갱(千人坑)	송악산 동굴진지, 알뜨르 비행장 등
여행의 섬	주요산업 중 여행업 비율 76.8%	주요산업 중 여행업 비율 46.1%

두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제안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다름’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기이다. 본토와 다른 이국적인 풍광은 두 지역을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나, 그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지역의 특성을 담은 독특한 문화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²⁾ 양측의 무형문화유산을 종합해보면, 제주와 하이난의 문화적 유사성은 ‘바다’·‘유

了.” 羅霞, 「海南人文魅力閃耀濟州」 『海南日報』 2015.10.8.

12) 국립제주박물관 편, 2003 『한국문화와 제주』, 서경, 205쪽.

배’·‘여성의 역할 강조’·‘제사(굿)’ 등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絶海孤島)라는 환경적인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두 지역은 2009년에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과 ‘리족의 방적·방직·염색·자수(Traditional Li textile techniques: spinning, dyeing, weaving and embroidering)’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나란히 등재시킨 저력을 지니고 있으며,¹³⁾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세계지질공원과의 공동 연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 속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단지 이국적인 풍물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신중하게 문화적 정수를 선택하여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지역 모두 풍부한 민가(민요)를 지니고 있지만, 제주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슬프고 구성진 노동요가 이루는데 비해, 하이난은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기인한 밝고 명랑한 노래가 주를 이룬다. 또한 하이난은 반주에 사용되는 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40여 종의 악기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의 악기는 하이난에 비해 종류도 적고 숫자도 많지 않다.¹⁴⁾ 같은 음악문화 속에서 차이점을 강조하는 전략은 제주의 음악문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

이어서 양 지역 모두 ‘탐라문화제’와 ‘환러절’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축제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음식문화의 경우, 먹거리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행정적)인 정비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향토음식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토대를 갖춰야 한다.¹⁵⁾ 제주에서는 ‘하이난의 국수(海南粉)’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과정을

13) UNESCO “Elements on the Lis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en&pg=00311&topic=mp&cp=KR>, (검색일: 2015년 12월 19일).

14) 제주의 전통악기로는 율북·장구·대양·설췌 등이 있으며 ‘물허벅’을 악기로 사용하는 점도 특이하다. 권태효, 2002 「제주도 무악기 ‘연물’의 진승적 연구: 물질, 구비, 행위전승의 측면에서」, 『생활문화연구』 제5호, 5-26쪽, 여기서는 9-12쪽.

15) 오상훈, 2015 「제주향토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제주의 소리』 (검색일: 2016년 1월 7일)

거울삼아 제주의 ‘고기국수’나 ‘밀면’ 등을 무형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원창(原昌) 지역의 닭 사육과 닭고기 요리’의 경우 교래리 삼다수마을의 토종닭이나 말고기 음식도 무형문화재로 정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2) 극대화하기

두 번째 제안은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가운데 장점을 흡수하는 것이다. 사실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및 99대 문화원형상징물은 이미 하이난 무형문화유산의 양적인 숫자와 맞먹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의 장점으로는 ① 개별목록에 대한 박물관이 구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 ② 무형문화유산과 축제를 연결시킨 경험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크기의 절반에 불과한 제주에 10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난립’이자 ‘재앙’이다.¹⁶⁾ 그러나 짝퉁 박물관·쓰레기 박물관들이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박물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바로 무형문화유산과 연계할 수 있는 말박물관(가시리)·갯전시관(교래리)·해녀박물관(구좌읍) 등이 그것이다. 특히 말박물관은 리(理)의 주민공동체에서 설립한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이난에서는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 ‘리족 방적·방직·염색·자수’ 항목에 대해서도 아직 개별 박물관이 없는 실정이므로, 제주의 경험 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오랜 역사 가운데 축적된 축제들도 제주의 큰 자랑거리인데, 특히 관(官)에서 벗어나 마을단위 ‘민간 중심’의 축제가 돋보인다. 예를 들어 늦가을에 열리는 대정고을추사문화제의 경우 유배행렬재현 체험, 서예백일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추사박물관관람과 추사유배길 걷기체험 등과 연계하고 있다.

16) Alex Frangos, 2014 “Korea’s Jeju~~~~”, *The Wall Street Journal*, 2014.1.14.

이미 제주대학교의 ‘김정희 유배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하이난의 성급 무형문화유산인 ‘동파 삿갓 만들기 기술’과 연결하여, 삿갓과 나막신으로 상징되는 유배생활 속의 낙천성을 부각시킨다거나, 소동파 → 추사 → 오늘날의 자발적인 유배자인 ‘이주민들’로 전승되는 조화와 힐링으로 확대하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추사학회와 동파학회가 연합하여 김정희와 소식의 지역인재들을 육성했던 대정향교와 소공사(蘇公祠)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민들과 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어서 하이난의 장점으로는 ① 일사분란한 행정체계, ② 다양한 목록의 구비, ③ 생태문화촌과의 연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하이난은 중앙정부의 상명하달식 정책에 편승하여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는 물론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인한 ‘질적 저하’ 및 정치적 이유·상업화에 힘입은 ‘만들어진 전통들’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관 및 법규의 제정은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이며,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대중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것도 배울만한 점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13일 하이난 무형문화유산의 날에 개최되었던 40여 종의 프로그램 가운데 ‘리족 비단짜기 대회(黎族織錦大賽)’의 경우, 하이난 각지의 선수들이 모여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10살 여자아이에서부터 70살 할머니까지 세대를 초월한 시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졌던 전승인들만의 전유물이 국가의 개입으로 다시 불씨가 붙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하이난의 조개껍질 공예·뼈 공예·나무가구 공예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기술은 금속·대나무(또는 닝쿨)·옹기에 한정되었던 제주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을 넓혀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이난의 소금과 설탕 제조기술, 골절약, 뱀에 물렸을 때 해독약, 리족의 야자(또는 호로박) 안고 강 건너기 풍속 등은 제주의 소금 빌레, 쇠비름을 비롯한 각종

약초, 해녀 테왁 등도 충분히 무형문화유산으로 정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이난의 장점으로는 무형문화유산과 생태문화촌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인데, 이미 관광지로 유명한 빈랑촌(檳榔村: 海南省三亞市鳳凰鎮檳榔村)을 비롯하여 스한촌(什寒村: 瓊中黎族苗族自治縣紅毛鎮什寒村), 위엔먼촌(白沙黎族自治縣元門鄉元門村) 등의 성공을 들 수 있다.¹⁷⁾ 이러한 중국 생태문화촌의 특징은 국가 주도하에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1월 제18차 삼중전회에서 강조한 ‘생태문명건설’과도 연관이 깊다. 좌혜경은 성읍민속마을에 제주민요(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땃돌노래),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초가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비지정문화재들이 남아 있으며 유네스코의 10가지 평가기준 가운데 4개에 부합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¹⁸⁾ 아마도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드는 주민들에 이끌려 대충 전통초가집을 구경한 뒤 말뼉가루환·고사리·오미자 등 제주토산품을 강매당한 기억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성읍민속마을의 원형성 복원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전통에 초점을 둔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마을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집중하기

세 번째 제안은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가운데, 실현가능한 체험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정규렬·강현수·고승익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

17) 특히 스한촌(什寒村)은 2013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농촌(中國十大最美鄉村)’, 2014년 ‘중국에서 가장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을(中國最美鄉愁村莊)’이란 칭호를 들으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금간관을 수여받았다. 陳元才, 「瓊中什寒村獲評“2014年海南十大最美鄉村”」, 『瓊中新聞』 2015.1.29.

18) 좌혜경, 2013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전통과 무형유산의 보존방향」, 『제주도연구』 제39권, 157-177쪽, 여기서는 163-164쪽.

면, 관람자들이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중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는 체험이 37.8%로 가장 높았다.¹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체험은 분명 지역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강화하며 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지만, 행사자체의 성과위주에 치우쳐 있어 진정한 문화적 저변확대나 행사의 성공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²⁰⁾

무형문화유산 체험은 조상들의 생활과 지혜를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교육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는 자칫 공허한 공염불이 되고 무의미한 일회성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각 지역의 행사들이 단지 시간과 장소만을 달리하고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별반 특화되거나 독창적인 면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게 된다.²¹⁾



사진 4. 변두리에 배치되어 한산한 탐라문화제의 제주 무형문화유산 부스
(출처: 제주매일)

아무리 수준 높은 전승인의 시연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해도, 그 예술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람자의 흥미를 일으키는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제주는 이점에 유의하여 서로의 프로그램 중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선별해야 할 것이다. 사실 2015년 탐라문화제 가운데 ‘하이난의 날’은 적절했지만, 하이난의 경우 환러절 가운데 ‘제주의 날’은 다소 아

19) 정규렬·강현수·고승익, 2014 「지역축제 평가속성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제 52회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농어촌관광연구』 제21권 제1호, 23-37쪽, 여기서는 30쪽.

20) 김승재, 2009 「지자체 주관 문화이벤트 교육 기능 확대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5-1호, 165-190쪽, 여기서는 165-166쪽.

21) 김승재, 위 논문, 171-173쪽.

쉬운 느낌이 들었다. 이유인 즉, 2,000년부터 시작된 환러절(歡樂節)은 역사도 짧은 편이고, 전통 문화보다는 관광·오락 위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삼월삼절(三月三節)’이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주의 경우



무형문화유산과 축제의 연계가 잘 어울렸다 하더라도, 탐라문화제의 진행은 아쉬운 점을 많이 남겼다. 무엇보다 다른 국·내외 문화교류축제에 묻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고(사진 5), 준비자나 관람자 모두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낮았다.

마지막으로 제주에는 오랜 축제의 경험이 축적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하이난의 각종 축제에서 호평 받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전통놀이(리족의 원 밖으로 밀어내기 놀이, 야자 들고 달리기, 물지게 지고 달리기 등), 전통음식(죽통밥, 쫄즈, 전병, 닭요리 등)을 활용한 어르신 상차림 대접, 리족·먀오족·후이족의 전통결혼식 체험,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이는 핸드폰 사진전 등에 대한 경험 등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기념품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결과물까지 얻을 수 있는 체험이라면, 서로의 전통문화를 기억하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4. 맺음말

2014년 테마도시인 경상북도-산시성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관련이 깊으며, 2015년 테마

도시인 제주-하이난은 관광업의 중심지이자 국가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도가 컸다. 그리고 2015년 12월 23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인문 공동위원회’에서는 2016년 테마도시로 충청남도-귀주성이 선정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중국 내 거대 내수시장인 서부지역과의 교류 거점을 확보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 쌍의 지역들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풍부한 전통문화의 도시’라는데 있을 것이다. ‘신라 문화’로 대표되는 경상북도와 ‘강한성당(强漢盛唐) 문화’로 대표되는 산시성, 중심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섬에서 이룩한 하이난의 소수민족 문화와 제주의 탐라 문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구이저우성과 백제 문화로 대표되는 충청남도 등 이 지역들의 본질은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때문에 본고는 그중에서도 전통 무형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춰, 지금까지의 동질감만을 추구하던 전략과는 상반되게 같은 속에서 ‘다름’을 드러내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서로의 모델로 삼으며, 실현가능한 체험을 선택하여 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인문(人文)’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식처럼 사용되고 있는 시기이다. 제주는 동아시아의 교류의 중심으로 설 의지가 강한만큼, 하이난과의 관계나 섬들 사이의 유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인문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다 확대된 시각으로 교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제주는 1960년대 이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의 80%를 차지하는 특수한 상황을 지니고 있지만, 당장의 수익을 창출하기에 급급해하며 좁은 시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속에서 ‘육지 것’과는 다른 자랑스러운 가치를 찾기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범, 2012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4쪽.
- 고희송, 20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한, 2013 「한중 인문교류의 새로운 방식-인문유대와 도시 간 국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29호, 한중사회과학학회.
- 김승재, 2009 「지자체 주관 문화이벤트의 교육기능 확대방안 연구: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5-1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65-190쪽, 여기서는 165-166쪽.
- 문화재연구회, 1999 『중요무형문화재(1)(2)(3)』, 대원사.
- 박수진, 「자기 집 잔치서 홀대 받는 무형문화재」, 『제주매일』 2015.10.11.
- 서연호, 2011 「21세기 한국문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2)-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선양방안」, 『공연과 리뷰』 제75호, PAF, 93-100쪽, 여기서 99-100쪽.
- 오상훈, 「제주향토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제주의 소리』 2015.12.16.
- 원성심, 「제주-하이난, 한·중 인문교류 중심축 역할 ‘모범사례’로 발표」, 『헤드라인 제주』 2015.12.24.
- 이편, 2010 『하이난 생태관광 이미지가 관광객의 가치와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근욱·양승탁·이혁진, 2011 「중국 하이난의 관광자원 콘텐츠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통권38호, 한국사진지리학회.
- 장호준, 2013 「한중 인문유대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일본학회·동북아시아문화학회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발표요약문.
- 장호준, 2013 「한중 인문유대를 위한 단상」, 『성균차이나브리프』 1권 3호, 성균중국연구소.
- 정규렬·강현수·고승익, 2014 「지역축제 평가속성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 제52회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농어촌관광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농어촌관광학회, 23-37쪽, 여기서는 30쪽.
- 좌혜경, 2012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전통의 발견과 무형유산의 보호」,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57-177쪽, 여기서는 163-164쪽.
- 채형지, 2012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5-32쪽.
- 陳文輝, 2014 「黎族非物質文化遺產保護與開發的意義」, 『現代婦女』 7期.
- 董國皇, 2011 「海南黎族非物質文化遺產保護與開發」, 『前沿』 3期.
- 何君陸・林宏平, 2007 「人文生態建設是海南生態省建設的關鍵」, 『海南廣播電視大學學報』 1期.
- 黃宇・羅艷菊・惠怡然, 2014 「基于游客體驗視角的非物質文化遺產活態民俗村開發模式的IPA評價」, 『綠色科技』 11期.
- 羅霞, 「海南人文魅力閃耀濟州」, 『海南日報』 2015.10.8.
- 沈德理, 2010 「國際旅游島建設背景下的傳統文化保護—以黃道婆的文化價值為視角」, 『海南師範大學學報』 4期.
- 王文章 主編, 2011 『第三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圖典(上)(下)』, 文化藝術出版社.
- 王旭, 「2015年中韓人文交流主題省道“濟州日”活動在海南舉行」, 『海南網』 2015.11.26.
- 吳珏・王鳳霞・范士陳, 2013 「黎族非物質文化遺產資源開發的問題及策略研究」, 『旅游總覽』 5期.
- 洗劍民・楊承舜, 2005 「從巾幗英雄到神靈偶像—洗夫人崇拜現象的探析與思考」, 『廣西社會』 3期.
- 張茂, 「2015年中韓人文交流主題省道“濟州日”系列活動演出」, 『南海網』 2015.11.26.
- 周和平 主編, 2007 『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圖典(上)(下)』, 文化藝術出版社.
- 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中心 編著, 2009 『第二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 文化藝術出版社.
- Alex Frangos: “Korea’s Jeju Island’s Battle of Museums Isn’t Exactly a Culture War”, The Wall Street Journal 2014.1.14.

인터넷 자료

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 2015 “탐라문화제 변천사”,

<http://www.tamnafestival.kr/information/?code=summary>, (검색일: 2015년 12월 23일).

海南省人民政府, 2012 “海南省人民政府關於調整并公布海南省省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項目名錄的通知”,

http://xxgk.hainan.gov.cn/hi/HI0101/201212/t20121212_814821.htm, (검색일: 2015년 12월 20일).

海南省人民政府, 2015 “海南統計年鑒”,

<http://www.stats.hainan.gov.cn/2015nj/index-cn.htm>, (검색일: 2016년 2월 10일).

UNESCO “Elements on the Lis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en&pg=00311&topic=mp&cp=KR>, (검색일: 2015년 12월 19일).

<Abstract>

The Suggestions for a Humanities ties between Jeju and Hainan

- Focusing on the Exchang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

Park, Sung-hye*

In this study, some suggestions were made about how Jeju and Hainan, both of which were selected as Korean-Chinese Theme Cities for Humanities ties in 2015, could use their tradi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 strengthen the humanistic bond between th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sisterhood relationship in 1995, both islands have emphasized common images—geographically long distance from the mainland, historically tragic exile, women’s leadership in the cultural respect, and tourism in recent times—for twenty years. However, each of them has unique cultural identity, which seems to be rooted fundamentally in its traditional culture.

This study suggested three ways of us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 strengthen a humanities ties: first, show differences in the midst of sameness to make each of them more charming; second, find out good points to utilize positively in mutual policies; and third, select feasible experiences to get nearer to people. Showing ‘differences’ means selecting cultural essence carefully and showing what differs, not just showing exotic scenery and customs. One of the specific methods is to maximize the

* Gachon University

advantages of each part and perform mutual benchmarking; in particular, the greatest advantage of Jeju can be that it is well equipped with museums and has long accumulated experiences of festival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inheritance. Next, focusing on realistic experiences cannot be neglected because ‘experiencing’ is the activity most preferred by viewers and the key point is to reach an agreement that arouses viewers’ interest while maintaining the artistic level.

As Jeju is very willing to become the center of East Asian exchanges, it is suggested that the island should focus on the essence of humanities through the work of complementing intangible cultural inheritance and perform exchanges from a wider perspective, instead of focusing only on the relationships with Hainan or on the inter-island bond. Although Jeju is in an economically special situation with tourist revenue forming 80% of its economy, the island needs to spend more time in working hard in search of different boastful values than those of the ‘mainland’, instead of being bent on utilizing intangible cultural inheritance from a narrow perspective to get immediate revenue. Both regions are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islands’ and become the cultural center of Asia.

주제어: 제주(Jeju), 하이난(Hainan),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인문유대
(Humanities ties),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Korean-Chinese exchanges thematic cities)

투 고 일:	2016년 1월 9일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1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7일